

인격적 매력으로 많은 이에게 관심받는 능력 역시 목회자의 능력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정말 목회자의 능력이 이런 것으로만 평가될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도태될 수밖에 없을까?

독일에서 유학하며 경험했던 ‘목회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본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라틴어 시험(Latinum)을 준비하던 시절, 6~7명의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 몇 명이 수업을 청강하였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각종 사전과 문법책, 다양한 문헌들로 가방을 가득 채워 힘겹게 다닐 때, 그들은 그날 해석할 문고판 책 한 권만 손에 쥐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전투적(?)으로 씨름하며 문헌들을 해석할 때, 그들은 여유로운 표정과 행동으로 본문을 해석하였다. 그 능력이 부러우면서도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우리를, 특히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중하게 특별 과외(?)를 부탁했다. 그중 한 분이 과외비는 필요 없으니 함께 공부하자며 날짜와 주소를 적어주었다. 당일에 해당 주소로 찾아가 보니 항상 다니던 길에 위치한 교회였고, 그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었다. 과외 첫날은 수업 시간에 청강했던 분들이 대부분 함께했다.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온 젊은 학생이 라틴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여 함께 위로도 하고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결국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목사님에게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전하니 우리가 함께 공부한 거라며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목사님에게 라틴어만이 아니라 ‘목회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긍휼한 마음, 누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귀 기울여 대화하는 능력 역시 진정한 목회자의 능력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목회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며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비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신하기도 한다. 다른 목회자의 능력을 시기하고 그와 비슷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황된 노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각자 다른 능력들을 주시어 서로 돕고 살게 하셨다. 목회자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목회자마다 각기 다른 능력을 주셨고 이를 잘 찾고 개발함은 목회자 각자의 몫이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능력이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찾고 개발함 역시 능력이다. 이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태도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 ‘항상 공부하고, 쉬지 말고 공부하고, 언제나 공부하라.’